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무안 남악으로 신축 사옥 이전

[농어촌공사 기자]

7월 1일부터 새 사옥서 업무 개시...무인민원발급기·전자계약 등 고객 중심 설비 갖춰
재난상황실 신설로 수해·지진 등 재난 대응 체계 강화...CCTV·기상정보 실시간 수집
범필재 지사장 "농업인 보호와 고객만족 실현...재난 대응에 만전 기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신축사옥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가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사옥을 이전하고, 7월 1일부터 새 터전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고객 접근성과 행정 편의성 향상은 물론, 재난 대응 역량까지 대폭 강화된 새로운 공간에서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신사옥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50번길 59-10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목포시 후광대로 114에 있던 사옥을 대체한다. 이전은 지난 6월 26일 완료됐으며, 업무 개시는 7월 1일부터다.

신축 사옥은 고객 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최신 시설을 갖췄다. 농지은행 사업 부서에는 카운터형 책상을 도입해 민원 접근성을 높였고, 전자계약 장비도 구축해 고객 편의를 극대화했다. 특히 무안군과 협의해 민원인들이 손쉽게 각종 행정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도 추진 중이다.

이번 이전의 핵심은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니라, 재난 대응 기능의 획기적 강화다. 신사옥 2층에는 재난상황실이 새롭게 구축됐으며, 이 공간은 기상이변, 수해, 지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무선통신장비, 기상 및 수문 정보 수집 체계 등을 모두 갖췄다.

범필재 목포무안신안지사장은 “신사옥 이전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고객 만족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사 내부 역량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와 농업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옥 이전은 단순한 장소 이동을 넘어,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재난 대응력 제고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전략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향후 농업기반시설 관리와 농지은행 사업 추진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기대된다.